

A Study on the Allowance for Bad Debts due to K-IFRS No-1109 Adoption: Focusing on Conservatism and Value Relevance

K-IFRS 제1109호 대손충당금의 적립 방법 변경 효과에 관한 연구: 보수주의와 가치 관련성을 중심으로

Kise Lee(First Auth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vic0103@hanmail.net)

Seongil Jeon(Corresponding Autho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eongiljeon@gmail.com)

Wooyul Kim(Co-Author)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nein76@naver.com)

.....

In 2018, K-IFRS No. 1109 (Financial Instrument) was Introduced. It was that firms were forced to allocate additional their allowance for bad debts. So This study analyze the change of allowance for bad debts after the government introduced K-IFRS No. 1109 (Financial Instrument). We also investigated whether this change can have an effect on firm's conservative. In addition, we analyze value of allocate allowance for bad debts.

Results of analyze are below. First, We was expected majority of firms to set up their allowance for bad debts higher. but, Some of firms allocated more allowance for bad debts. That firms also showed higher conservative compared to the other firms.

Secondly, it was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dditional allowance for bad debts and firm's value. So, we find out that CEO tries to recognize their loss timely and decrease uncertain about future loss, get their interested parties understand possibility of firm's future revenue and growing. That's why firms set-up more allowance for bad debts. Finally, In higher conservative firms, the allocation to additional allowance for bad debts tended to prevent firm's value from going down relatively.

Key Words: K-IFRS Financial Instrument. Allowance for bad debts, Firm's Conservative

.....

Submission Date: 09. 09. 2020

Revised Date: (1st: 01. 15. 2021)

Accepted Date: 02. 09. 2021

Copyright 2011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대손충당금이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및 대여금 등과 같은 금융자산에 대해 미리 손실을 예측하고 이를 미리 현 시점에서 손상처리 하는 계정과목이다. 즉, 기업의 회수불능채권을 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정으로 특히, 자산 중 대여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금융업에서는 매우 중요한 계정과목이다.

이러한 대손충당금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과거 K-GAAP에서는 기대손실모형이 적용되었으나 2011년 K-IFRS 도입으로 인해 발생손실모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발생손실모형은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대손을 인식하기 때문에 손상차손의 인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와 반대로 손상인식이 지연됨에 따라 대손충당금이 과소설정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또한 국내 금융안정포럼(FSF, Financial Stability Forum)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은행업의 경우 발생손실모형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면 경기가 안정적일 때는 부실기업들의 대여금에 대해 신용손실을 지연인식 하였다가 경기가 불황기 일 때 급격하게 신용손실을 인식하게 되어 은행업의 대출 여력이 크게 위축되고 이로 인해 국내경기의 후퇴가 가속화 된다고 주장하였다(Seo, 2018).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국가로서 2018년부터는 기업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상품)를 적용하여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을 발생손실개념에서 다시 기대손실개념으로 환원하여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발생손실모형은 앞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아니라 이미 발생했다는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하였지만 기대신용손실모

형에서는 향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대손충당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대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모든 미래 정보를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고 또한 매 보고기간 말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위험 변동을 갱신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회계기준 변경의 목적은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해 손실을 적시에 인식하도록 하여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정도와 시기 불확실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해 이해가능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적용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의 설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정보이용자들에게 금융자산에 대한 이해가능성과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먼저,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기업들의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여부를 경영자의 보수주의 회계처리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둘째,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의 가치관련성 그리고 더 나아가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의 가치관련성이 변동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적용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정보 유용성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 기업들 중 일부기업들만 대손충당금 설정에 관한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으로 인해 기업들은 향후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발생위험의 변동, 미래 전망 등 신용위험의 유의

적인 증가를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감독기관에서는 기업이 금융자산에 대한 신용위험을 계산할 때 과도한 원가가 발생된다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기에 현재 복잡한 신용위험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에 대해 복잡한 계산식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단순한 방식을 인정하고 있다. 즉, 실행기관이 감독기관에서는 기대 신용손실에 대해 복잡한 계산식을 요구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간편법 사용을 인정하였고 또한 금융자산의 12개월 기대손실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추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복잡한 계산식을 대신하여 단순하게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측정하기 때문에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기업들은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설정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는 기업들에 비해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보수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보수주의는 기업의 손상가능성을 지연시키기 않고 즉시 인식하기 때문에 보수성향이 높은 기업들은 회계기준변경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즉시 인식하였고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액 역시 보수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설정액 또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여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가치를 하락시켰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에서는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은 이익의 하락으로 이어지기에 부정적인 뉴스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에 따라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 보수주의 측정치에 따라 일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가치 하락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 즉, 보수주의가 높은 집단에서는 보유자산에 대한 미래 손실을 적시에 인식하여 미래 이익을 보다 정확하게 정보이용자들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기업가치를 상승시키고자 하는 경영자의 사적 정보전달이론이 일부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고 또한 발생손실과 기대신용손실 간 대손충당금의 가치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차별적이지 않았으며 모두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즉, 두 회계기준 간 대손충당금에 대한 가치관련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정보유용성 측면에서도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의 회계정보 유용성이 크게 변동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일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둘째, 분석방법에서는 경영자의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과 보수주의와 관련성 그리고 대손충당금의 가치관련성 등을 분석하여 제도변경의 효과성을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통해 대손충당금의 설정방식이 변경되었다하더라도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정보유용성은 변동되지 않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감독기관에서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금융자산에 대한 회계정보 유용성을 높이고자 회계기준을 변경하였다. 하지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에 대해 복잡한

계산식 대신 간편법을 인정하는 등 예외적인 사항을 인정한다면 회계정보 유용성은 크게 제고되지 못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감독기관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새로운 회계제도를 적용할 경우 예외적인 사항을 최소화 하여야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절에서는 대손충당금에 대한 회계처리와 선행연구 및 가설을 설정하였다. 3절에서는 본 연구에 대한 모형설계를 제시하였으며, 4절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기술하고 마지막 5절에서는 연구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2.1 대손충당금에 관한 회계원칙 비교¹⁾

대손충당금과 관련된 구 기준서(K-IFRS 제1039호)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을 '발생손실(Incurred Loss) 모형'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손상사건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대손충당금을 인식한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대손은 반영하지 않으며,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관측 가능한 자료를 이용하여 손상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한다.

반면에 신 기준서(K-IFRS 제1109호)에서는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모형'으로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손실을 인식하도

록 하였다. 따라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대손도 반영하여야 하며,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한 합리적인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며 매 보고기간 말 신용위험 변동을 갱신하고 이를 반영해야만 한다. 또한 K-IFRS 제1109호에서는 신용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을 3단계로 구분하여 대손충당금 설정과 이자수익 인식 기준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였다. 먼저, 제 1단계는 신용위험이 낮아 향후 1년간 예상손실을 기대신용손실법을 적용하여 부실 위험을 측정하지만 제 2단계와 제 3단계에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법을 적용하여 부실 위험을 측정하게 된다. 이처럼 신용손실을 적기에 인식함에 따라 구 기준서상 대손충당금 과소설정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2.2 선행연구 검토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한 대손충당금의 증감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로 금융업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기업은 외상매출금 등 발생액을 조정하여 이익조정을 하지만 금융업종은 대출채권에 대한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매우 높아 대손충당금을 재량적으로 조정하여 이익유연화 및 경영성과를 조정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 중 먼저,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이익조정에 이용되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Ma(1988)의 연구에서는 미국 은행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통한 이익관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재량적 대손충당금 설정액과 이익변수와의 관계는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여 은행업종의 경영자들이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통해 이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IFRS 금융상품 신기준서의 금융회사 영향 및 시사점"(2018. 6. 29) 인용

이익유연화를 실시한다고 보고하였다.

McNichols and Wilson(1988)의 연구에서는 대손충당금설정액과 이익관리를 검증하였는데 연구방법으로는 기업의 총이익수준(ROA)에 따라 10개 그룹으로 나누어 이익관리 여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이익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재량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국내연구에서는 Moon(2005)는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재량적 활용이 높은 대손충당금 기말추가설정액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가 전기 대비 당해 연도 이익이 높다면 대손충당금 기말추가설정액을 높게 보고하여 이익의 변동을 감소시킴을 밝혀 대손충당금 기말추가설정액에 대한 조정유인이 경영자의 이익유연화에 활용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Ji and Park(2006)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을 이용하여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자의적으로 조정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자기자본비율이 목표했던 수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대손충당금 설정율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저축은행들은 자기자본비율을 관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재량적으로 조정함을 보고하였다.

Bae and Kim(2012)에서도 은행업에 대해 재량적 대손충당금의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연구결과 은행의 이익이 높을 경우 경영자가 재량적으로 대손충당금의 적립을 증가시키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이를 통해 은행업에서 이익유연화 현상이 존재하며 그 수단으로 대손충당금 적립금이 이용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K-IFRS의 도입으로 인해 변경된 대손충당금의 산정방식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Park et al(2011)에서는

K-IFRS 도입으로 인해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산정방식에 대한 회계기준의 변경효과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례분석의 대상인 B상호저축은행이 실제 새로운 회계기준을 도입할 경우 종전기업 회계기준을 적용 할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금액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영세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짐으로 PF(Project Financing)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시중 은행보다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함을 보고하였다.

Kim and Koh(2011)의 연구에서는 K-IFRS 도입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이 현재보다 과소 설정됨에 따라 이 제도의 변경에 따라 기업의 법인세 납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업의 법인세 과세는 최소화 하면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으로 대손준비금을 새롭게 신설하여 환입된 대손충당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하되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정준비금인 대손준비금 규정을 마련하고,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의 변경으로 신고조정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Kim and Lee(2015)에서는 대손충당금 관련 회계기준의 변경효과를 살펴보고자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은행업의 대손충당금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 이후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나 대손준비금 적립 등에 의하여 BIS 자본비율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유동성과 건전성이 저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충당금의 구조적인 상관관계 및 회계기준변경에 대한 보완을 위해

구축된 금융구제로 인해 BIS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현행 회계기준을 면밀히 재검토 하여 기대손실모형으로 회귀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영자의 재량적인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Wanlen(1994)은 재량적 대손충당금 전입이 미래 현금흐름 증가 및 은행 주가와 양(+)의 상관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이는 투자자가 동 정보를 긍정적인 뉴스로 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Docking et al.(1997)에서는 대손충당금 전입이 주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임을 보고하였으며 이는 미래 기업이익을 하락시키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부정적인 뉴스로 인식함을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Choi(2003)의 연구에서는 은행업을 대상으로 하여 대손충당금 전입 조정과 주가반응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경영자들은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낮을수록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증대시킴을 보고하였다. 또한 주가반응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은행의 비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이 증가할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나 자산건전성 분류를 보수적으로 하여 대손충당금전입액을 증대시키는 경우 긍정적으로 평가함을 보고하였다.

Kim(2018)의 연구에서는 국내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대손충당금 전입액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조정과 주식시장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이익관리 관점에서 은행과 저축은행이 전반적으로 대손충당금의 재량적 조정을 통해 이익유연화를 시도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는 재량적 대손충당금의 증가를 해당 은행과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악화로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재량적 대손충당금전입액 증가는 시장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져

양호한 미래 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정보 전달이론이 성립되지 않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대손충당금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대다수 금융업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금융업은 타 산업에 비해 자산 중 대여금(매출채권)의 비중이 높아 대손충당금 설정변경이 기업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을 제외한 일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의 변경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금융업이 아닌 일반 상장기업에서도 영업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매출채권 및 채권에 대한 대손위험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이 때문에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운영자금 관리와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는 금융업 뿐 아니라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회계제도의 변경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특정산업 뿐 아니라 일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살펴보아야 제도변경의 실효성을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과 경영자의 보수주의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3 가설 설정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사건에 대해 비용이나 손실은 빨리 인식하고 수익이나 이익은 늦게 인식하는 회계원칙이

다. 이러한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악재를 조기에 반영함으로써 경영자와 시장참여자 간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Holthausen and Watts, 2001), 중립적인 회계처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회계처리 성향이 높은 기업은 이익의 질이 높아져 회계정보의 질을 나타내는 측정치로도 사용된다(Kim and Bae, 2007).

한편, K-IFRS 제1109호 적용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이 이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만 충당금을 설정하는 발생손실모형에서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모두 고려하여 충당금을 설정하는 기대손실모형으로 변경된다면, 손실을 빨리 인식하려는 경영자일수록 회계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추가적인 충당금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즉,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경영자일수록 미래 손실가능성을 더 빨리 인식하기 때문에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처럼 금융자산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설정을 보수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의 정도와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게 되며, 앞선 설명처럼 경영자와 시장참여자 간의 정보비대칭성 또한 감소하여 회계정보의 질이 높아져 시장참여자들에게 우호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가 적용된다면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경영자일수록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미래 손상의 예상가능성을 더 빨리 인식하여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통해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검토하는 데에 목적적합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1: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으로 인해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것이다.

대손충당금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경영자의 재량적인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이익유연화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며(Ma, 1988; Ji and Park, 2006; Bae and Kim, 2012 등), 재량적인 대손충당금이 증가된다면 회계이익 감소와 재무건전성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가치가 하락한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Docking et al, 1997; Choi, 2003; Moon, 2005 등).

이에 따라 K-IFRS 제 1109호(금융상품) 적용으로 인해 경영자가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미래 이익이 하락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뉴스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인해 기업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Kanagaretnam et al(2003)의 연구에 따르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재량적 대손충당금 증가를 경영자의 양호한 미래 이익에 대한 사적정보 전달로 평가하여 기업가치가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다수의 연구에서도 은행 경영자들이 미래 현금흐름 또는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사적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전입액을 재량적으로 늘림으로써 미래 예측에 대한 신호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기업가치가 증가됨을 보고하였다(Wahlen, 1994; Beaver and Engle, 1996).

이처럼 사적정보의 신호효과 관점에서 주식시장에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을 향후 미래 현금흐름이 양호하다는 사적정보로 판단하거나 보유자산에 대한 미래 손실을 적시에 인식하여 미래 이익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경영자의 긍정적인 행위

로 인식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해 기업가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이 변경되어 경영자가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미리이익을 하락시키는 부정적인 뉴스로 인식할 수도 있지만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또는 이익이 증가될 것이라는 신호로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가치에 미치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가설 2: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III. 연구 모형 설계 및 표본 선정

3.1 모형설정 및 변수정의

3.1.1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

본 연구에서 K-IFRS 제1109호(금융자산) 적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표본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감사보고서상 주식사항에서 회사가 제 1109호의 적용으로 인하여 손상차손의 인식 관련 정책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초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1) 기초 이익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경우

에는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액은 0으로 측정

(2) 최초 적용일 시점 재측정에 따른 변동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효과를 제외하고 기초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을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액으로 측정하였다.

3.1.2 보수주의 측정

일반적인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비용과 손실은 가능한 한 조기에 인식하고 수익과 이득은 실현이 될 때까지 인식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순이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게 하고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게 한다.

이러한 보수주의 회계처리 관점에서 K-IFRS 제1109호 적용효과를 살펴보면 보수적 회계처리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 제도 적용 이후 매출채권 및 기타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을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인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이는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미래손실을 가능한 빨리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 제1109호 적용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기업들의 보수주의 성향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모형을 통해 각 기업의 보수주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첫 번째 보수주의 측정치로 Penman and Zhang (2002) 모형을 통해 각 기업의 보수주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먼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 후입선출법 적용시 발생하는 적립금과 연구개발비 적립금, 광고선전비 적립금의 합계액을 순영업자산으로 나누어 계산된 값을 C점수라 하였고 이 점수의 t년도와 t-1년도의 변화분을 Q점수라 하였다. 즉, Q점수는 순영업자산의 증가에 비해 보수주의 항목이 얼마나 증가 했는지를 비교한 것이다.

따라서 C점수는 대차대조표상의 보수주의 지표라 하고 Q점수는 손익계산서상의 보수주의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CONS_{jit} = (DEP_t + BAD_t + RD_t + AD_t + IMP_t) / MV_t - (DEP_{t-1} + BAD_{t-1} + RD_{t-1} + AD_{t-1} + IMP_{t-1}) / MV_{t-1} \quad \text{식(1)}$$

변수의 정의:

$CONS_{jit}$ = t년도 첫 번째 보수주의 측정치;

DEP_t = t년도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

BAD_t = t년도 대손상각비;

RD_t = t년도 연구개발비;

AD_t = t년도 광고선전비;

IMP_t = t년도 자산감액손실;

MV_t = t년도 3월말 시장가치.

다음으로 두 번째 보수주의 측정치는 Givoly and Hayn(2000)의 연구에서 사용한 비영업발생액을 영업현금흐름으로 나눈 비율을 사용하였다. 이들 연구에서는 비영업발생액은 총발생액에서 영업발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대손상각비, 감액손실, 자산처분손익, 자산평가손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비영업발생액은 일반적으로 음(-)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비영업발생액의 음(-)의 값이 높을수록 보수주의 경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CONS_{j2t}$ 앞에 음(-)의 부호를 붙인 이유는 비영업발생액이 크면 클수록 보수주의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차이분석시 해석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CONS_{j2t} = (-1) \cdot (TA_t - OA_t) / CF_t \quad \text{식(2)}$$

변수의 정의:

$CONS_{j2t}$ = t년도 두 번째 보수주의 측정치;

TA_t = t년도 감가상각비 전 총발생액

(현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증가분에서 유동성 장기 부채를 제외한 유동부채 증가분);

OA_t = t년도 영업발생액

(매출채권증가분+채고자산증가분+선급비용증가분-매입채무증가분-미지급법인세증가분);

CF_t = t년도 영업현금흐름(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후 총발생액을 차감한 금액).

마지막 세 번째 보수주의 측정치는 Khan and Watts(2009)의 연구에 제시된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Basu(1997)가 보고한 비대칭적 이익의 적시성에 기초하여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보수주의 성향을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수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투자기회의 공통적인 대응치(proxy)로 시장가치 대 장부가치(MTB), 기업 규모(SIZE), 부채비율(LEV)을 설정하여 기업-연도 별 보수주의 측정지표, C-Score를 보수주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Basu(1997)의 모형으로부터 Khan and Watts(2009)의 C-Score를 산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 식(3)을 통해 Basu(1997)는 주가수익률로 측정된 동일 기간의 경제적 손실(bad news)이 경제적 이익(good news)에 비해 회계이익에 더 빨리 반영되는 정도로 보수주의 회계처리 성향으로 정의하였다.

$$Earn_{i,t} = a_0 + a_1 D_{i,t} + a_2 CAR_{i,t} + a_3 D_{i,t} \times CAR_{i,t} + \epsilon_{i,t} \quad \text{식(3)}$$

변수의 정의:

$Earn_{it}$ = t년도 계속사업이익/ 기초 시가총액

CAR_{it} = t년도 수익률(t기 4월부터 t+1기 3월까지의 연간 월별누적수익률)

D_{it} = t년도 CAR가 0 보다 작으면 1, 아니면 0.

식(3)에서 Khan and Watts(2009)는 경제적 이익의 적시성지표 a_2 를 G-Score로, 경제적 손실의 적시성지표 $a_2 + a_3$ 을 G-Score+C-Score로 측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C-Score 값이 클수록 기업이 경제적 이익에 비해 경제적 손실을 보다 빨리 회계이익에 반영하는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우선 C-Score와 G-Score를 추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식(4)와 식(5)를 설계하였다.

$$G-Score = a_2 = \mu_1 + \mu_2 SIZE_{i,t} + \mu_3 MTB_{i,t} + \mu_4 LEV_{i,t} \quad \text{식(4)}$$

$$C-Score = a_3 = \lambda_1 + \lambda_2 SIZE_{i,t} + \lambda_3 MTB_{i,t} + \lambda_4 LEV_{i,t} \quad \text{식(5)}$$

마지막으로 식(4)와 식(5)를 Basu(1997)의 식(3)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식(6)이 된다.

$$\begin{aligned} Earn_{i,t} = & a_0 + a_1 D_{i,t} \\ & + a_2 CAR_{i,t} (\mu_1 + \mu_2 SIZE_{i,t} + \mu_3 MTB_{i,t} + \mu_4 LEV_{i,t}) \\ & + D_{i,t} \times CAR_{i,t} (\lambda_1 + \lambda_2 SIZE_{i,t} + \lambda_3 MTB_{i,t} + \lambda_4 LEV_{i,t}) \\ & + (\delta_1 SIZE_{i,t} + \delta_2 MTB_{i,t} + \delta_3 LEV_{i,t} + \delta_4 D_{i,t} SIZE_{i,t} \\ & + \delta_5 D_{i,t} MTB_{i,t} + \delta_6 D_{i,t} LEV_{i,t} + \epsilon_{i,t}) \end{aligned} \quad \text{식(6)}$$

변수의 정의:

SIZE_{it} = t년도 총자산의 자연로그 값

MTB_{it} = t년도 시가총액/총자본

LEV_{it} = t년도 총차입금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사채+장기차입금)/총자산

셋 번째 보수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식(6)의 모형식으로 연도별로 계수값을 추정한 후, 식(4)와 식(5)에 대입하여 최종적으로 기업-연도별 G-Score와 C-Score를 구하게 되며, C-Score 값이 클수록

기업의 회계처리에 있어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선 설명처럼 보수주의는 손상인식을 지연시키지 않고 즉시 반영하기 때문에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K-IFRS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을 즉시 인식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 보다 보수주의 회계처리 성향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계하였다.

$$\begin{aligned} PROV-DUMMY(PROV-Ration)_t \\ = a_0 + a_1 CONS_{j1(2,3)t} + a_2 SIZE_t + a_3 ROA_t \\ + a_4 LEV_t + a_5 MB_t + a_6 RECE_t + a_7 \sum_i IND_t \\ + \epsilon_t \end{aligned} \quad \text{식(7)}$$

변수의 정의:

PROV-DUMMY_t = t-1년도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식했으면 1, 아니면 0;

PROV-Ration_t = t-1년도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인식액/자산총계);

CONS_{j1t} = t년도 Penman and Zhang(2002) 모형에 의한 보수주의 측정치;

CONS_{j2t} = t년도 Givoly and Hayn(2000) 모형에 의한 보수주의 측정치;

CONS_{j3t} = t년도 Khan and Watts(2009)모형에 의한 보수주의 측정치;

SIZE_t = t년도 자산총계에 자연로그;

ROA_t = t년도 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자산총계);

LEV_t = t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MB_t = t년도 장부가치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

RECE_t = t년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매출채권 및 대여금/자산총계);

IND = 산업더미변수.

식(7)에서 먼저, 종속변수는 K-IFRS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해 기업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으면 1, 아니면 0을 갖는 더미변수와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이다.

다음으로 모형의 중요 변수로는 보수주의 측정치인 $CONS_{j1,2,3}$ 이며, 만약 각 기업의 보수주의 측정치가 높을수록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요인과 설정금액이 높다면 이들 회귀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들이 예상된다.

3.1.3 대손충당금 설정과 가치관련성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Ohlson(1995)을 모형을 통해 K-IFRS 제 1109호의 적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기초적인 Ohlson모형에서 Myers(1999)의 방식대로 절편과 오차항을 초과이익 이외의 기타 정보를 대신하였다. 더불어 주가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음(-)의 순이익과 양(+)의 순이익 정보를 구별하기 위하여 음(-)의 순이익(NEG_E)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Hayn 1995; Collins et al. 1999).

$$P_{t+1} = \alpha_0 + \alpha_1 BV_{t-1} + \alpha_2 NE_t + \alpha_3 NEG_E_t + \epsilon_t \quad \text{식(8)}$$

변수의 정의:

P_{t+1} = t+1년도 3월말 주가;

BV_{t-1} = t-1년도 말 주당 순자산;

NE_t = t년도 주당 순이익;

NEG_E_t = t년도 NE_t 가 음(-)이면 NE_t , 그렇지 않으면 0.

본 연구는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기업가

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t-1년도 자본 총계(BV)를 다시 수정된 자본(ABV)과 추가로 설정된 대손충당금(PROV)로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P_{t+1} = \alpha_0 + \alpha_1 ABV_{t-1} + \alpha_2 PROV_{t-1} + \alpha_3 NE_t + \alpha_4 NEG_E_t + \alpha_5 \sum_i IND + \epsilon_t \quad \text{식(9)}$$

변수의 정의:

ABV_{t-1} = t-1년도 말 수정된 주당 순자산(자본총계에서 추가적인 인식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PROV_t$ = t-1년도 추가로 인식한 주당 대손충당금;

IND = 산업더미 변수;

나머지 변수는 식(8) 참조.

만약, K-IFRS 제1109호의 적용으로 인해 경영자가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면 이는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이어져 이들 대손충당금에 대한 추가배수는 음(-)의 값을 보일 것이다.

3.2 표본선정

본 연구는 2018년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K-IFRS 제1109호 적용으로 인한 대손충당금의 추가적인 설정 여부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수집하였다. 또한 재무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database을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1) 12월 말 결산법인 기업 및 금융업이 아닌 기업
- 2) Kis-Value database에서 필요한 모든 회계

및 추가 자료가 제공되는 기업

- 3) 재무변수가 상·하 1%를 벗어나지 않는 기업
- 4) 보수주의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

IV. 실증분석

4.1 기술통계

이상을 조건을 만족하는 총 542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아래 <Table 1>은 표본 기업의 기술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여부

<Table 1> 기술통계

구분(n=542)	평균	중위수	표준편차	1%	99%
PROV-DAUMMY _t	0.180	0.000	0.381	0.000	1.000
CONS _{j1t}	0.007	0.001	0.104	-0.140	0.244
CONS _{j2t}	-0.147	-0.105	2.107	-6.970	6.280
CONS _{j3t}	0.158	0.140	0.456	-0.908	1.160
SIZE _t	27.036	26.767	1.502	24.411	31.265
ROA _t	0.017	0.023	0.091	-0.293	0.253
LEV _t	0.395	0.404	0.211	0.015	0.876
MB _t	1.352	0.874	1.644	0.232	8.668
RECE _t	0.137	0.127	0.101	0.000	0.462
PRICE _{t+1}	48,412	11,000	141,263	411	635,000
ABV _{t-1}	50,856	11,715	145,524	436	587,907
NE _t	2,494	383	10,218	-12,851	38,673
PROV _{t-1}	17.316	0.000	103.241	0.000	380.477
PROV-Ration _t	0.001	0.000	0.002	0.000	0.010

1) 변수의 정의:

- PROV-DUMMY_t = t-1년도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식했으면 1, 아니면 0;
 CONS_{j1t} = t년도 Penman and Zhang(2002) 모형에 의한 보수주의 측정치;
 CONS_{j2t} = t년도 Givoly and Hayn(2000) 모형에 의한 보수주의 측정치;
 CONS_{j3t} = t년도 Khan and Watts(2009)모형에 의한 보수주의 측정치;
 SIZE_t = t년도 자산총계에 자연로그;
 ROA_t = t년도 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자산총계);
 LEV_t = t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MB_t = t년도 장부가치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
 RECE_t = t년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매출채권 및 대여금/자산총계);
 PRICE_{t+1} = t+1년도 3월말 추가;
 ABV_{t-1} = t-1년도 말 수정된 주당 순자산(자본총계에서 추가적인 인식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NE_t = t년도 주당 당기순이익;
 PROV_t = t-1년도 추가로 인식한 주당 대손충당금;
 PROV-Ration_t = t-1년도 추가로 인식한 대손충당금의 비율(추가적으로 인식한 대손충당금/자산총계);

(PROV-DUMMY)의 평균이 0.180을 보여 표본 기업 중 약 18%만 회계기준변경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본 기업에 대한 보수주의 측정치를 살펴보면 $CONS_{j1}$ 의 평균(중위수)은 0.007(0.001), $CONS_{j2}$ 의 평균(중위수)은 -0.147(-0.105)을 보이고 있으며, $CONS_{j3}$ 의 평균(중위수)은 0.158(0.140)을 보였다.

재무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의 평균(중위수)은 27,036(26.767), 자산이익률(ROA)의 평균(중위수)은 0.017(0.023)을 보였으며, 부채비율(LEV)의 평균(중위수)은 0.395(0.404),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를 나타내는 MB의 평균(중위수)은 1.352(0.874)를 보였다.

자산대비 매출채권 및 대여금의 비율(RECE)의 평균(중위수)은 0.137(0.127)을 보여 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은 약 14% 정도를 보였다.

주가관련 변수들을 살펴보면 주가(PRICE)의 평균(중위수)은 48,412(11,000)원을 보였지만 주당 수정된 장부가치(ABV)의 평균은 50,856(11,715)원을 보여 주가(PRICE) 보다 더 높은 평균(중위수) 값을 보였고 주당 순이익(E)의 평균(중위수)은 2,494(383)원을 보였다.

그리고 주당 대손충당금 추가인식 금액(PROV)의 평균(중위수)은 17.316(0.000)을 보이고 있어 표본기업은 K-IFRS 제1109호 적용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금액이 약 17원임을 알 수 있었다.

자산 대비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의 비율(PROV-Ration)의 평균(중위수)은 0.001(0.000)을 보여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의 설정액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2 상관관계

다음으로는 주요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대손충당금의 추가 설정 여부인 PROV-DUMMY는 $CONS_{j1,2,3}$ 과 모두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여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설정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는 기업들에 비해 보수주의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재무변수와 PROV-DUMMY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와 부채비율(LEV)과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자산이익률(ROA)과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MB)와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는 기업들에 비해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으나 다른 재무변수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PROV-DUMMY와 주가관련변수들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주가(PRICE), 수정자본(ABV), 그리고 이익(NE)과는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주가(PRICE)는 수정자본(ABV)과 이익(NE)에 대해서는 모두 양(+)의 상관성을 보였지만 추가적인 대손충당금(PROV)과는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여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으로 기업가치가 하락함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대손충당금(PROV)은 수정자본(ABV)과 이익(NE)과 모두 양(+)의 상관성을 보여 장부가치와 이익이 높은 기업일수록 대손충당금의 추가설정액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비율인 PROV-Ration은 두 보수주의 측정치인 $CONS_{j1,2,3}$ 과 모두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여 대손충당금 추가설정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보수주의 성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산이익률(ROA)과는 유의한 음(-)의

〈Table 2〉 상관관계분석

구분	PROV-DUMMY _t	CONS _{1t}	CONS _{2t}	CONS _{3t}	SIZE _t	ROA _t	LEV _t	MB _t	RECE _t	PRICE _{t+1}	ABV _{t-1}	NE _t	PROV _{t-1}
CONS _{1t}	0.137***												
CONS _{2t}	0.071*	-0.027											
CONS _{3t}	0.220***	0.189***	-0.015										
SIZE _t	0.130***	-0.001	0.042	0.608***									
ROA _t	-0.063	-0.306***	0.076*	-0.084**	0.210***								
LEV _t	0.189***	0.171***	-0.054	0.726***	0.116***	-0.326***							
MB _t	-0.027	-0.064	-0.039	-0.423***	-0.168***	-0.207***	0.115***						
RECE _t	-0.303	-0.005	-0.062	0.072**	-0.228***	0.006	0.247***	0.014					
PRICE _{t+1}	0.055	-0.023	-0.033	0.026	0.290***	0.131***	-0.096**	0.081*	-0.116***				
ABV _{t-1}	0.044	-0.011	-0.027	0.106***	0.339***	0.095**	-0.113***	-0.081*	-0.138***	0.793***			
NE _t	0.039	-0.088**	0.029	-0.021	0.221***	0.317***	-0.180***	-0.018	-0.095**	0.465***	0.488**		
PROV _{t-1}	0.242**	0.200***	0.014	0.198***	0.161***	0.006	0.073*	-0.046	-0.020	-0.070*	0.127**	0.165**	
PROV-Ration _t	0.385***	0.139***	0.097**	0.095**	-0.037	-0.190***	0.090**	0.054	-0.019	-0.037	-0.042	-0.039	0.457***

1) 변수의 정의는 〈Table 1〉 참조.

2)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상관성을 부채비율(LEV)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여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이익은 낮고 부채비율은 높음을 알 수 있다.

4.3 차이분석

다음은 K-IFRS 제1109(금융상품)호의 적용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추가설정이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표본을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식한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분류하여 주요 변수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기업들의 $CONS_{j1,2,3}$ 의 평균이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즉, K-IFRS 제1109호(금융상품)가 적용됨에 따라 보수주의 회계처리 성향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금융자산에 대해 손상을 즉시 인식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업규모의 평균(중위수)은 추가적으로 대손충당

금을 설정한 집단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자산이익률(ROA)과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MB)는 두 집단 간 유의한 평균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부채비율(LEV)은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집단이 더 높은 평균(중위수)을 보였다. 나머지 변수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분석 결과를 통해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설정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비해 보수주의 성향이 높으며 기업규모가 크고 부채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4.4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과 보수주의

다음 <Table 4>에서는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기업들의 보수주의 성향과 함께 재무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다음과 같이 로짓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주의 성향을 나타내는 $CONS_{j1,2,3}$ 의 계수 값이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따라

<Table 3> 대손충당금 추가 설정 여부에 따른 집단 차이분석

구분	대손충당금 추가 미설정 집단 (n=444)		대손충당금 추가설정 집단 (n=98)		차이분석	
	평균	중위수	평균	중위수	t값	z값
$CONS_{j1t}$	0.004	0.000	0.023	0.001	-3.36***	-0.25
$CONS_{j2t}$	-0.219	-0.140	0.185	0.100	-1.72*	-2.04*
$CONS_{j3t}$	0.116	0.098	0.328	0.335	-5.43***	-5.12***
$SIZE_t$	26.946	26.672	27.452	27.259	-3.04***	-3.13***
ROA_t	0.019	0.024	0.004	0.019	1.47	1.92*
LEV_t	0.376	0.377	0.480	0.488	-4.55***	-4.38***
MB_t	1.372	0.872	1.258	0.904	0.82	-0.74
$RECE_t$	0.138	0.128	0.135	0.121	0.73	0.67

1) 변수의 정의는 <Table 1>를 참조.

2)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Table 4〉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 여부와 보수주의와의 관련성 분석

$$\text{Model 1: } \text{PROV-DUMMY}_t = a_0 + a_1 \text{CONS}_{j1(2,3)t} + a_2 \text{SIZE}_t + a_3 \text{ROA}_t + a_4 \text{LEV}_t + a_5 \text{MB}_t + a_6 \text{RECE}_t + a_7 \sum_i \text{IND}_t + \epsilon_t$$

Variable	종속변수=PROV-DUMMY _t					
	Model 1-1		Model 1-2		Model 1-3	
	Estimate	Wald Chi-Square	Estimate	Wald Chi-Square	Estimate	Wald Chi-Square
Intercept	-7.22	10.78***	-8.078	12.48***	22.852	3.42**
CONS _{j1t}	2.031	3.59*				
CONS _{j2t}			0.325	25.86*		
CONS _{j3t}					7.474	6.08**
SIZE _t	0.177	4.95**	0.203	6.07**	-0.853	4.06**
ROA _t	0.315	0.04	-1.142	0.66	-1.355	0.92
LEV _t	2.213	12.55***	2.238	12.32***	-9.371	3.74*
MB _t	0.025	0.09	0.032	0.13	0.873	6.21*
RECE _t	-1.160.	0.85	-0.633	0.24	-1.410	1.22
IND	포함					
Likelihood Ratio	34.672***		58.795***		39.935***	

1) 변수의 정의:

- PROV-DUMMY_t = t-1년도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인식했으면 1, 아니면 0;
 CONS_{j1t} = t년도 Penman and Zhang(2002) 모형에 의한 보수주의 측정치;
 CONS_{j2t} = t년도 Givoly and Hayn(2000) 모형에 의한 보수주의 측정치;
 CONS_{j3t} = t년도 Khan and Watts(2009)모형에 의한 보수주의 측정치;
 SIZE_t = t년도 자산총계에 자연로그;
 ROA_t = t년도 자산이익률(당기순이익/자산총계);
 LEV_t = t년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MB_t = t년도 장부가치 대비 시가총액의 비율;
 RECE_t = t년도 대손충당금 설정비율(매출채권 및 대여금/자산총계);
 IND = 산업더미변수.

2)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서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미래 손상을 지연시키지 않고 즉시 인식하기 때문에 K-IFRS 제 1109호(금융상품) 적용으로 인해 금융자산에 대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즉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변수들을 살펴보면 Model 1-1과 Model

1-2에서는 기업규모(SIZE)가 클수록, 부채비율(LEV)이 높을수록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요인이 높았으나 자산이익률(ROA)과 장부가치 대비 시가치(MB) 그리고 매출채권 및 대여금의 비율(RECE)은 유의한 계수 값을 보이지 않아 이들 변수들과 대손충당금의 추가설정은 관련성이 낮았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Model 1-3에서는 기업규모(SIZE)가 작

을수록, 부채비율(LEV)이 낮을수록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의 설정금액과 경영자의 보수주의 성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종속변수를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비율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Model 2-1과 Model 2-2 그리고 Model 2-3에서 $CONS_{j1,2,3}$ 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변수들을 살펴보면 기업규모(SIZE)와 부채비율(LEV), 장부가치 대비 시장가치(MB) 그리고 매출채권 및 대여금의 비율(RECE)은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산이익률(ROA)만 모두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여 자산수익률이 낮을수록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이 높아졌다. 이는 보수주의 성향이 강한 기업일수록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요인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과 보수주의와의 관련성 분석²⁾

$$\text{Model 2: } PROV\text{-}Ratio_t = a_0 + a_1 CONS_{j1(2,3)_t} + a_2 SIZE_t + a_3 ROA_t + a_4 LEV_t + a_5 MB_t + a_6 RECE_t + a_7 \sum_i IND_t + \epsilon_t$$

구분	종속변수=PROV-Ration _{t-1}								
	Model 2-1			Model 2-2			Model 2-3		
	Coef	std -Coef	t -value	Coef	std -Coef	t -value	Coef	std -Coef	t -value
Intercept	0.001		0.49	0.009		0.42	0.014		2.82**
$CONS_{j1t}$	0.003	0.135	3.02**						
$CONS_{j2t}$				0.001	0.105	2.51**			
$CONS_{j3t}$							0.004	0.566	2.94***
$SIZE_t$	-0.001	-0.016	-0.36	-0.002	-0.012	-0.28	-0.001	-0.271	-2.72***
ROA_t	-0.004	-0.125	-2.58***	-0.005	-0.174	-3.74***	-0.002	-0.179	-3.85***
LEV_t	0.003	0.027	0.58	0.004	0.036	0.77	-0.004	-0.354	-2.47**
MB_t	0.001	0.046	1.09	0.006	0.037	0.87	0.005	0.252	2.92***
$RECE_t$	-0.007	-0.029	-0.64	-0.007	-0.024	-0.54	-0.009	-0.035	-0.77
IND	포함								
Adj-R ²	0.042			0.049			0.054		

1) 변수의 정의:

$PROV\text{-}Ratio_t = t-1$ 년도 추가로 인식한 대손충당금의 비율(추가적으로 인식한 대손충당금/자산총계); 나머지 변수는 〈Table 4〉 참조.

2)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2) 모형의 다중공선성을 측정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의 값은 1.40을 넘지 않았다.

4.5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의 설정과 가치관련성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설정한 대손충당금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아래와 같은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Ohlson(1995)의 기본 모형인 Model 3에서는 예상대로 장부가치(BV)와 주당이익(NE)은 모두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값을 보였다.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의 가치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한 Model 4에서는 대손충당금 추가액(PROV)은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여 추가적인 대손충당

금 설정은 기업가치를 하락시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이익을 하락시켜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뉴스로 인식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Table 7>은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에 따라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이 기업가치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Model 5-1과 Model 5-2에서 수정 장부가치(ABV)와 이익(NE)은 모두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그리고 대손충당금 추가액(PROV)은 Model 5-1과 Model 5-2에서 유의한

<Table 6>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의 가치관련성 분석³⁾

Model 3: $PRICE_{t+1} = \alpha_0 + \alpha_1 BV_{t-1} + \alpha_2 NE_t + \alpha_3 NEG_E_t + \alpha_4 IND + \epsilon_t$

Model 4: $PRICE_{t+1} = \alpha_0 + \alpha_1 ABV_{t-1} + \alpha_2 PROV_{t-1} + \alpha_3 NE_t + \alpha_4 NEG_E_t + \alpha_5 IND + \epsilon_t$

구분	종속변수 = Price _{t-1}					
	Model 3			Model 4		
	Coef	std-Coef	t-value	Coef	std-Coef	t-value
Intercept	14,248	-	4.48***	14,806	-	4.64***
BV _{t-1}	0.363	0.465	10.89***	-		
ABV _{t-1}	-			0.363	0.465	10.91***
PROV _{t-1}	-			-49.520	-0.044	-1.69*
NE _t	2.120	0.189	4.51***	2.216	0.198	4.69***
NEG _t	-14.960	-0.438	-10.89***	-15.0721	-0.441	-10.98***
Industry Dummy	포함					
Adj-R ²	0.631			0.633		

1) 변수의 정의

P_{t+1} = t+1년도 3월말 주가;

BV_{t-1} = t-1 년말 주당 순자산;

ABV_{t-1} = t-1년도 말 수정된 주당 순자산(자본총계에서 추가적인 인식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

PROV_{t-1} = t-1년도 추가로 인식한 주당 대손충당금;

NE_t = t 년도 주당 순이익;

NEG_t = t년도 NE_t가 음(-)이면 NE_t, 그렇지 않으면 0.

IND = 산업더미.

2)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3) 모형의 다중공선성을 측정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의 값은 2.69를 넘지 않았다.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지만 Model 5-3에서는 유의한 회귀계수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의 더미변수와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의 상호작용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와 셋 번째 보수주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CONS_{j1,3}$ -DUMMY $\times$ PROV의 회귀계수

는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보여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에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과 차이가 없었다. 즉, 보수주의가 높더라도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Table 7〉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의 가치관련성과 보수주의와의 관련성 분석⁴⁾

$$\text{Model 5: } PRICE_{t+1} = \alpha_0 + \alpha_1 ABV_{t-1} + \alpha_2 PROV_{t-1} + \alpha_3 CONS_{j1(2,3)} - DUMMY_t \times PROV_{t-1} \\ + \alpha_4 CONS_{j1(2)} - DUMMY_t + \alpha_5 NE_t + \alpha_6 NEG_E_t + \alpha_7 \sum_t IND + \epsilon_t$$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Price _{t-1}								
	Model 5-1			Model 5-2			Model 5-3		
	Coef	std -Coef	t -value	Coef	std -Coef	t -value	Coef	std -Coef	t -value
Intercept	23,615	-	4.26***	14,593	-	4.42***	20,737	-	4.82***
ABV _{t-1}	0.4859	0.393	8.67***	0.370	0.474	11.14***	0.369	0.472	11.11***
PROV _{t-1}	-89.412	-0.051	-1.67*	-174.705	-0.157	-3.11***	-60.90	0.055	0.70
CONS _{j1} -DUMMY _t $\times$ PROV _{t-1}	-90.758	-0.022	-0.65	-					
CONS _{j2} -DUMMY _t $\times$ PROV _{t-1}	-			165.544	0.128	2.50**			
CONS _{j3} -DUMMY _t $\times$ PROV _{t-1}							-117.264	-0.100	1.27
CONS _{j1} -DUMMY _t	-26,185	-0.041	-1.31						
CONS _{j2} -DUMMY _t	-			2,871	0.007	0.26			
CONS _{j3} -DUMMY _t							-13,052	-0.057	-2.15**
NE _t	7.427	0.419	9.35***	2.279	0.203	4.84***	2.199	0.196	4.67***
NEG _t	-18.582	-0.344	-8.08***	-15.046	-0.441	-11.01***	-15.147	-0.444	-11.08***
IND	포함								
Adj-R ²	0.588			0.636			0.601		

1) 변수의 정의:

CONS_{j1}-DUMMY_t: CONS_{j1}의 값이 중위수 보다 크면 1, 아니면 0을 갖는 더미변수;

CONS_{j2}-DUMMY_t: CONS_{j2}의 값이 중위수 보다 크면 1, 아니면 0을 갖는 더미변수;

CONS_{j3}-DUMMY_t: CONS_{j3}의 값이 중위수 보다 크면 1, 아니면 0을 갖는 더미변수;

나머지 변수는 〈table 6〉 참조.

2)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4) 모형의 다중공선성을 측정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VIF의 값은 2.70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두 번째 보수주의 측정치를 이용하여 분석한 $CONS_{j2}$ -DUMMY $\times$ PROV는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이는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이 높다면 이들 기업들의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에 대한

추가배수는 그렇지 않은 기업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에서 추가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면 보수주의 성향이 낮은 기업에서의 동일한 대손충당금 추가

〈Table 8〉 대손충당금의 가치관련성 분석⁵⁾

$$\text{Model 6: } AR_{i,t} = \alpha_0 + \alpha_1 AfBD_t + \alpha_2 SIZE_t + \alpha_3 ROA_t + a_4 \sum_i^j IND + \epsilon_t$$

구분	종속변수: $AR_{i,t}$								
	2017 year ~ 2018 year			2017 year			2018 year		
	Coef	std-Coef	t-value	Coef	std-Coef	t-value	Coef	std-Coef	t-value
Intercept	0.998		3.22***	1.631		2.90***	0.376		1.43
AfBD _t	0.070	0.145	0.48	0.074	0.012	0.28	0.086	0.029	0.70
SIZE _t	-0.036	-0.094	-3.17***	-0.060	-0.123	-2.92***	-0.012	-0.052	0.20
ROA _t	0.752	0.134	4.45***	0.995	0.141	3.27***	0.524	0.153	3.62***
IND	포함								
Adj-R ²	0.021			0.026			0.022		

$$\text{Model 7: } AR_{i,t} = \alpha_0 + \alpha_1 AfBD_t + \alpha_2 AfBD_t \times Yr - DUMMY + \alpha_3 Yr - DUMMY + \alpha_4 SIZE_t + \alpha_5 ROA_t + a_6 \sum_i^j IND + \epsilon_t$$

구분	종속변수: $AR_{i,t}$ (2017 year ~ 2018 year)		
	Coef	std-Coef	t-value
Intercept	0.978		3.16***
AfBD _t	0.077	0.015	0.38
AfBD _t $\times$ Yr-DUMMY	-0.008	-0.001	-0.03
Yr-DUMMY	0.042	-0.038	1.20
SIZE _t	-0.036	-0.094	-3.18***
ROA _t	0.757	0.135	4.48***
IND	포함		
Adj-R ²	0.022		

1) 변수의 정의

- AR_{i,t} = 각 기업의 t년도 말 비정상수익률;
 AfBD_t = t 년도 대손충당금 비율 (대손충당금/자산총계);
 SIZE_t = t년도 자산총계에 자연로그;
 ROA_t = t년도 자산이익률 (당기순이익/자산총계);
 IND = 산업더미.

2) *, **, *** 는 각각 10%, 5%,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5) 모형의 다중공선성을 측정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VIP의 값은 1.15를 넘지 않았다.

설정 보다 상대적으로 기업가치 하락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보수주의의 성향이 높은 기업들에서는 대손충당금 설정은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가치 하락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양호한 미래 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정보 전달이론이 부분적으로나마 성립됨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수주의 성향의 높고 낮음에 따라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를 분석한 결과 보수주의 측정치 모두에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보수주의의 성향이 높은 기업들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은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가치 하락을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4.6 추가분석

추가분석에서는 Moon(2005)의 모형을 인용하여 대손충당금에 대한 가치관련성과 대손충당금의 설정 방식 변경에 따라 가치관련성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만약,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대손충당금이 높더라도 그 만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면 동 대손충당금의 가치관련성은 긍정적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기업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이익을 하락시키고 재무건전성이 악화시키는 부정적인 뉴스로 인식하고 있다면 동 대손충당금의 가치관련성은 부정적일 것이다.

또한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이 대손충당금의 가치관련성을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에 따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대손충당금의 가치관련성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8〉에서 대손충당금 설정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Model 6과 Model 7에서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AfBD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양(+)의 값을 보여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참여자들은 대손충당금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Model 6에서 발생손실모형과 기대신용손실모형에 대해 기간별로 대손충당금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AfBD의 회귀계수가 모두 유의하지 않은 양(+)의 회귀계수를 보여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에 따라 가치관련성은 상이하지 않았다.

추가적으로 Model 7의 상호작용변수를 통해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에 따라 가치관련성이 차별적인지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AfBD×Yr-DUMMY의 회귀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보여 두 회계기준 간 대손충당금의 가치관련성은 차별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K-IFRS 제1109(금융상품)호 적용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이 변경되었지만 일부 기업만이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였고 대다수의 기업들은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동일하였다. 이처럼 두 회계기준 간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대손충당금의 가치관련성이 변동되지 않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 외 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규모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보였으며, 자산이익률은 모두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효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제도 적용 이전에는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의 대손충당금 설정은 발생손실모형으로 손실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 손상차손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임의적인 손상차손 인식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생손실모형에서는 미래에 예상되는 금융자산의 손실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의 인식을 지연시키고 이익이 과대평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제회계기준의 전면 도입 국가로서 2018년부터는 K-GAAP에서 사용하였던 기대손실모형으로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을 다시 환원하여 K-IFRS 제1109호(금융상품)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가증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과 보수주의 성향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으며, 또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요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설정한 기업들의 보수주의 성향은 그렇지 않는 기업들 보다 높았다. 이는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들이 K-IFRS 제1109호(금융상품) 적용으로 인해 추가적인 대손충당금을 즉시 인식하여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현금흐름의 정도와 시기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정확하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회계정보 유용성을 높이려고 할 수 있다.

둘째,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기업가치를 하락시켰다. 이를 통해서서는 기업의 외부 이해 관계자들은 경영자의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당기이익을 하락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에 따라 추가 대손충당금 설정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를 분석한 결과 보수주의 측정치에 따라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기업일수록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상대적으로 기업가치의 하락이 낮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서는 보수주의의 성향이 높은 기업들의 대손충당금 설정은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가치 하락을 감소시켜줘 양호한 미래 이익에 대한 경영자의 사적정보 전달이론이 부분적으로나마 성립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손충당금 설정 자체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또한 발생손실모형 기간과 기대신용손실 기간에도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K-IFRS 제1109호 적용으로 인해 대손충당금 설정방식이 변경되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인한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이 증가되지 않아 대손충당금에 대한 가치관련성 또한 변동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융업이 아닌 일반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적용효과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큰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여부는 경영자의 보수주의 성향과 관련성이 높다는 것과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은 기업가치를 하락 시키지만 부분적으로나마 보수주의 성향이 높은 집단에서는 추가적인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인해 경영자의 사적 정보 전달이론이 성립될 수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서는 회계 관리감독기관에서는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의 적용 목적은 정보이용자들에게 금융자산에 대한 이해가능성

과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지만 기업 부담을 줄이고자 간편법 인정 등 적용에 예외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준다면 재무제표이용자들의 회계정보 유용성은 크게 제고되지 못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 Bae, S. H., Kim, J. D(2012), "A study on the Income Smoothing Factors of Banks through Loan Loss Provisions," *Korea Association of Tax & Accounting*, 34, pp.83-98.
- Basu, S(1997),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 (1), pp.3-37.
- Beaver, W. H., and E. E. Engel(1996). "Discretionary Behavior with respect to Allowances for Loan Loss Accruals and Behavior of Security Pric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2(1), pp.177-206.
- Choi, H. S(2003), "Discretionary Loan Loss Provisioning by Korean Commercial Banks and Stock Price Respons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Studies*, 32(1), pp.35-70.
- Collins, D. W., M. Pincus, and H. Xie(1999), "Equity Valuation and Negative Earnings: The Role of Book Value of Equity," *The Accounting Review*, 74(1), pp.29-61.
- Docking, D. S., M. Hirschey and E. Jones(1997), "Information and Contagion Effects of Bank Loan-Loss Reserve Announcement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3(2), pp.219-239.
- Givoly, D. and C. Hayn(2000), "The Changing Time-Series Properties of Earnings Cash Flows and Accruals: Has Financial Reporting become more Conservativ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 29(3), pp.287-320.
- Hayn, C(1995), "The Information Content of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0 (2), pp.125-153.
- Holthausen. R. W and R. L. Watts (2001), "The Relevance of the Value-Relevance Literature for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Sett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1 (1), pp.3-75
- Ji, H. M., Park, H. J(2006), "The Regulatory Capital Ratio Management of Saving Banks Using the Loan Loss Provisions," *Korean Accounting Journal*, 15(s), pp.23-44.
- Kanagaretnam, K., Lobo, G. J., Yang, D. H(2003). "Determinants of signalling by banks through loan loss provis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3), pp.312-320.
- Khan, M., and R. L. Watts(2009), "Estimation and Empirical Properties of a Firm-Year Measure of Accounting Conservatism,"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48(2-3), pp. 132-150.
- Kim, H. J. and Lee, K. H(2015), "Accounting Practices for Allowance for Bad Debts due to K-IFRS Adoption in the Banking Industry,"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28(1), pp.1-32.
- Kim, J. O and Bae, G. S(2007), "Corporate Governanc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Evidence from Board and Audit Committee Characteristics," *Korean Accounting Review*, 32(3), pp.89-115.
- Kim, M. H(2018), "Discretionary Loan Loss Provisions and Stock Market Response: A Comparative Analysis of Commercial Banks and Savings

- Bank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35(3), pp.189-216.
- Kim, S. S and Koh, U. S(2011), "A Study on the Taxation Effects of Banking Business Allowance for Bad Debts due to K-IFRS Adoption," *Korean Accounting Journal*, 20(1), pp.109-134.
- Ma. C(1988), "Loan Loss Reserves and Income Smoothing. The Experience in the U. S. Banking Industry," *Journal of Business Finance & Accounting*, 15(4), pp.487-497.
- McNichols, M., and P. Wilson(1988), "Evidence of Earnings Management from the Provision for Bad Deb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6, pp.1-31.
- Moon, H. J.(2005), "The Discretionary Behaviors of Loan Loss Provisions for Banks and Their Value Relevance," *Korean Accounting Journal*, 14(1), pp.1-26.
- Myers, J(1999), "Implementing Residual Income Valuation with Linear Information Dynamics," *The Accounting Review*, 74(1), pp.29-61.
- Ohlson, J(1995), "Earnings, Book Values and Dividends in Security Valua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1, pp.661-687
- Park, S. J.,Hue, K. B. and Ma, H. Y(2011), "The Impacts of the K-IFRS Introduction on Allowance for Bad Debts: A case study on mutual savings banks," *Korean Accounting Journal*, 20(2), pp.123-152.
- Penman, S. and X. Zhang(2002), "Accounting Conservatism, the Quality of Earning, and Stock Return," *The Accounting Review*, 77(2), pp. 237-264.
- Seo, B. H. (2018), "Effects and Implications of Changing Accounting Standards for Domestic Banks," *Weekly Financial Brief*, 27(17), pp. 12-15
- Wahlen, J. M(1994), "The Nature of Information in Commercial Bank Loan Loss Disclosures," *The Accounting Review*, 69(3), pp.455-478.

-
- The author Ki Se Lee is Part-time Lecturer, in the School of Business at Kumoh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Yeungnam University. he was Post-doctoral researcher of School of busines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e holds a Ph.D. in accounting from Channam National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are in the areas of high-grow firm, Credit rating, and DEA.
 - The author Seongil Jeon is professor of accounting in the School of Busines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ior to joining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e was research professor of School of business SungKyunKwan University. He holds a Ph.D. in accounting from KyungHee University. His research interests are in the areas of intangibles assets, stock price crash risk, disclosure quality, and market efficiency.
 - The author Wooyul Kim is a senior manager in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He is a Master Candidate in accounting from Chonnam National University.